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초과… 자산배분 재정비 불가피

코스피 급등에 비중 15% 상회 전망
내년 국내주식 목표비중 14.4% 제시
국민연금 국내매도 압력 커질 가능성
증시 수급 개선 논의와 참여 확대론
해외투자·환율 급등에 전략 딜레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 목표치를 재조정할 지 관심이 쏠린다. 코스피지수가 4000을 넘어서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비중이 연말 목표 비중(14.9%)을 훌쩍 넘어서 추가 매수 여력을 사실상 소진한 데 따른 것이다.

시장에서는 찬반 의견이 맞선다. 국민연금 같은 기관이 주식 투자를 늘려 증시 부스터업과 환율 안전판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투자 목표 비중을 조정하거나 그런 효과를 내는 조치를 취한다면 정부 등의 압력을 받아 원칙을 흔들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있다.

16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8월 말 기준 국내주



국민연금이 작년 약 58조원의 평가이익을 거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전체 지분 증가액의 35%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식이 14.8 % (196조2548억원)으로 지난해 말(11.5%) 대비 3.3%포인트 늘었다. 해외 주식은 같은 기간 1.3%포인트 늘어나 36.8 % (486조425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국내 증시에 불이 붙으면서 평가이익이 불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3분기 코스피 급등에 힘입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이 15%를 넘어섰

을 거라는 추정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을 늘린 이유는 수익률이 중요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인구는 늘어나는데, 그 재원을 댈 인구는 줄어들어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내년도 기준 국내주식 목표 비중은

14.4%, 해외주식은 38.9% 수준이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이나 일본 등은 기관 투자자 비중이 60%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더 높고 기관과 외국인의 비중은 절반 이하로 낮다”며 “이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이 단기적인 시대의 흐름을 쫓아 가려는 성향이 강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판단했다. 이 센터장은 “정부 차원에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호적인 정책들을 마련해 유인한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을 높이고,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주가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사회적·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도 “국민연금 기

금운용본부의 전략적 자산 배분은 정치권의 요구가 아닌 전략적 자산 배분에 따른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국외 자산을 줄인다면 환율 안전판이 흔들릴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처럼 환율이 요동칠 때 ‘소방수’ 역할을 해왔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요청하면 외화 자산의 최대 15%까지 환 헤지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내부적으로 예상한 것보다 원화가치가 더 내려가면 보유한 해외 자산의 일부를 선물환(특정일에 사전에 약정한 환율로 매수·매도하는 거래)을 통해 파는 방식이다.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의 외화 자산은 지난 8월 말 기준 771조3000억원 규모다.

최근 한국은행도 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 투자여건 개선, 국민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과도한 민간 부문의 해외투자 편중 경향을 완화하고, 순대외자산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시총 10조’ 기업, 반년 새 47 → 61곳

5개월 만에 14곳 신규 편입 증가
코스피 시총 2211조서 3299조
삼성·하이닉스, 약 502조 견인
대형주 중심 상승세 더욱 뚜렷

상장사 61곳이 국내 시가총액 ‘10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16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 시총 10조원 이상 상장사의 수는 총 61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기업은 알테오젠(29조6000억원), 에코프로비엠(14조7000억원), 에코프로(12조2000억원) 등 3개이고, 나머지 58개는 모두 유가증권시장 소속이었다.

코스피 불장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5월 말까지만 해도 ‘시총 10조 클럽’은 총 47개에 불과했고, 코스닥 시장에선

알테오젠만 홀로 기준선을 넘은 상태였는데 불과 5개월여만에 14개나 개수가 늘어난 것이다.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넘는 ‘시총 100조 클럽’ 기업군에도 삼성전자(575조4000억원), SK하이닉스(407조7000억원)에 더해 LG에너지솔루션(108조3000억원)이 추가로 합류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5월 말 2211조원에서 이달 14일 기준 3299조원으로 49.2% 급증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시총 10조 클럽’이 10여개 늘어난 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 있다.

이는 이 기간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증가분(약 1088조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46.1%(약 502조원)로 거의 절반에 이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 기간 시가총액이 332

조7000억원에서 575조4000억원으로 73.0%,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은 148조9000억원에서 407조7000억원으로 173.8% 급증했다.

올해 하반기 들어 시가 총액이 10조원 이상으로 뛰어오른 종목에는 효성중공업(약 19조8000억원), 포스코퓨처엠(약 18조6000억원), HD현대(약 17조원), 삼성전기(약 15조9000억원), 두산(약 15조원), 에코프로비엠(약 14조7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LS일렉트릭(약 13조6000억원), 미래에셋증권(약 13조3000억원), 현대글로비스(약 12조5000억원), 에코프로(약 12조2000억원), 한미반도체(약 12조원), 한국항공우주(약 10조원), SK바이오팜(약 10조원), 한화시스템(약 10조원) 등도 10조 클럽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신하은 기자

해외 파생상품 ‘무경험 투자’ 막는다

금투협, 12월 15일 교육·모의 의무화

앞으로 해외 파생상품이나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를 처음 거래할 때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투협은 오는 12월 15일부터 해외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제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국내 선물·옵션 등 일부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교육·모의거래 절차가 해외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해외 파생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 거래대금은 2020년 6282조원에서 지난해 1경607조원으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해외 레버리지 상품은 20조4000조원에서 397조3000조원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최근 5년 동안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대규모 손실을 보는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발생한 손실만도 2512억원에 달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가 시장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별다른 준비 없이 진입해 분위기에 휩쓸려 추종 매매를 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2월 15일부터는 해외 선물·옵션을 신규 거래하려면 1시간 이상 사전교육과 3시간 이상 모의 거래 절차를 밟아야 한다. 65세 이상 투자자의 경우 사전 교육 10시간, 모의 거래 7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해외 레버리지 상품 역시 1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신규 주문 제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거래 방식이 일반 주식 거래와 동일한 만큼 모의 거래 과정은 도입하지 않았다.

금투협은 “해외 파생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레버리지 구조는 원금 초과 손실이 이어질 위험이 높아 철저한 이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해외주식 순매수 5.3조… 서학개미 ‘역대급 매수’

메타·엔비디아 매수 집중
외국인 국내서 9조 매도

‘서학개미’ 등 국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가 11월에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14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는 해외 주식을 총 36억3000만달러(약 5조3000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전 달(68억1300만달러) 같은 기간 순매수 규모는 17억7200만달러였다.

지역별로 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14일까지 미국 주식을 36억3400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지수 등 미국 주요 주가지

수가 이달 들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대거 ‘물타기’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

유로 지역 주식을 1억8000만달러, 홍콩 주식을 1억7000만달러, 중국 주식을 1억5000만달러 각각 순매수했으나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일본 주식은 3억5000만달러 순매도했다.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주식은 메타로 무려 5억6000만달러(약 8120억원)를 순매수했다. 인공지능(AI) 붐의 최대어인 엔비디아(5억4300만달러)에 이어 메타 주가 흐름에 2배로 연동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METU)에도 2억7100만달러 순매수가 몰렸다.

올해 서학개미의 월별 순매수 규모를 보면, 1월 40억5100만달러, 2월 31억

1400만달러, 3월 44억9000만달러, 4월 35억5200만달러 등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됐다. 5월과 6월 12억9500만달러, 3억9400만달러 순매도로 전환했다가 7월 다시 4억8600만달러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어 8월 2억7800만달러, 9월 27억7200만달러 순매수 이후 매수 규모가 급증했다.

최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순매도와 동시에 확대되는 흐름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14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서 누적 9조1278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SOL 팔란티어’ 개인 순매수 1300억 돌파

신한운용 고분배율로 투자자 관심 ↑

신한자산운용은 ‘SOL 팔란티어 커버드콜OTM채권혼합’과 ‘SOL 팔란티어 미국채커버드콜혼합’ ETF 두 종목이 상장 이후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 규모 1300억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SOL 팔란티어 커버드콜OTM채권혼합’과 ‘SOL 팔란티어 미국채커버드콜혼합’ ETF는 지난 10월 각각 1주당 210(2.04%)원과 250(2.06%)원의 월 배급을 지급하며, 국내 상장된 157개의 월배당 ETF 가운데 가장 높은 월 배배율을 기록했다. 연환산 기준 배배율을

각각 25.5%, 17.7%에 달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월분배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기덕 신한자산운용 퀀트&ETF운용본부장은 “상장 이후 6개월 동안 일관된 분배정책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의 분배금을 제공한 결과, 월배당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SOL 팔란티어 미국채커버드콜혼합ETF’는 팔란티어 비중을 약 30%까지 확보하면서도 높은 인컴을 제공해 퇴직연금 내 안전자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